

■ 2024년도 길위의인문학(지혜학교)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도 길위의인문학(지혜학교) / 길도1분과
- 회의일시 : 2024년 5월 8일(수) 10:30~12:00
- 회의장소 : 예술위 충정로 사무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백원근, 정수희, 추미경

'길 위의 인문학'은 국민의 생활 가까이에 있는 문화기반시설에서 인문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입니다. 국민의 인문에 대한 관심 증진과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강연과 체험, 인문자원 탐방, 후속 모임 등을 포함한 사업 기획안 중에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심의 기준은 사업 기획의 우수성, 사업 수행시설/인력의 전문성, 예산 편성의 적절성, 사업 운영 시설의 편의성, 사업의 파급 효과 등 다섯 가지 항목이며, 심의 항목별로 5개 등급으로 세분하여 채점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5점의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본 심의분과의 심의위원들은 절대평가 방식에 의해 전국 도서관에서 제출하신 사업 계획에 대해 각자 개별 평가를 진행한 후 심의위원 3명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동점이 있을 경우, 첫째는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신규 참여 도서관 우선 원칙, 다음으로 지역 균형 지원 원칙에 따라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 소재의 도서관을 먼저 고려하였습니다. 지원 서류를 검토하여 채점하는 1차 온라인 심의에 이어 2차 오프라인 합평 심의를 통해 심의위원 전원이 원만하게 합의하여 최종 지원 도서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지원하신 전국 각지의 도서관들은 지역의 특성 및 관심사, 지역의 인문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민들에게 질 높은 인문 강연 및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자 수준 높은 계획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인문의 관점에서 풀어내는 기획, 새로운 관점으로 인문의 지평을 넓힌 기획들이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선정된 곳에서는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통해 지역 인문 향유의 기반을 넓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기를 바라며, 안타깝게 선정되지 못한 곳에서는 다음 기회에 더 나은 사업 계획을 통해 사업 수행의 기회가 꼭 주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관심으로 응모해 주신 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길위의인문학(지혜학교) 심의위원 일동

■ 2024년도 길위의인문학(지혜학교)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도 길위의인문학(지혜학교) / 길도2분과
- 회의일시 : 2024년 5월 8일(수) 15:30~17:00
- 회의장소 : 예술위 충청로 사무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지혜, 정현태, 최선재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국민의 생활 가까이에 있는 문화기반시설을 통해 인문 가치를 확산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인문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강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에 기반한 강연, 체험, 탐방 등을 결합한 융합 프로그램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올해도 이러한 사업 취지를 잘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다수 접수되었기에 심사위원으로서 우수한 프로그램들을 선정하기 위해 고심하였다.

본 6분과에서는 '사업기획의 우수성(30점)', '사업 수행시설(인력)의 전문성(20점)', '예산편성의 적절성(10점)', '사업운영시설(강의실 등) 편의성(10점)', '사업의 파급효과(30점)'의 심의 기준에 따라 총 127종의 프로그램을 검토하였다. 먼저, 심사위원들은 사전 의견 조율 없이 모든 프로그램들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독립 채점하였고, 이후 합산 결과를 살피며 최종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동점의 경우, 신규 참여 단체 및 지역 소재 단체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사업 활성화와 지역 균형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3인의 심사위원들은 각자 주제에 대한 가치 평가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였으나 편차가 크지 않았기에, 큰 이견 없이 합산 결과에 따라 공정하게 최종 선정 프로그램들을 결정할 수 있었다.

심사위원들은 올해 지원한 프로그램들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우수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주제가 다양한 점을 특징으로 꼽았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를 반영한 AI, 포스트휴머니즘, SF 등을 다룬 인문학 프로그램들이 눈에 띄었으며, 지역의 특수성을 잘 활용한 프로그램들, 2~3개의 분야를 결합한 융복합 프로그램들이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본 사업에 지원한 우수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인문학적 토대가 단단히 다져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사업의 지원 규모가 한정되어 있기에 우수한 모든 프로그램들을 선정할 수 없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각 단체 및 시설에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담당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정 결과가 향후 한국 인문학의 발전 및 국민 삶의 질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4 길위의인문학(지혜학교) 심의위원 일동

■ 2024년도 길위의인문학(지혜학교)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도 길위의인문학(지혜학교) / 길도 3분과
- 회의일시 : 2024년 5월 9일(목) 13:30~14:30
- 회의장소 : 예술위 충정로 사무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기혁, 김영임, 이순영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각종 도서관, 기념관 등 공공재를 거점으로 인문학적 가치의 향유와 확산을 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다양한 인문학적 정신과 가치가 있겠지만 공적 지원과 관련해 우선 고려되어야 할 키워드는 바로 '계몽'일 것이다. 칸트의 정의에 따르면, 계몽은 타인의 지도 없이 잠재된 지성을 사용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공동체 내부의 사회적 지위가 초래하는 권위와 억압을 벗어나 자유로운 비판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세계시민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칸트는 이것을 이성의 공적인 사용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공공재를 활용해 인문학의 대중화를 추구한다는 의미는 지식의 보급이나 개인의 영달에 도움을 주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지금, 여기'에서 마주하게 되는 사회적 문제를 직시하고 자유로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일깨우는 데 그 일차적 목표가 있는 것이다. 서로 다른 경험을 지닌 심사자들이 합의한 공통된 기준 역시 그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마중물로서의 역할이었다. 다양한 학문 분과에서 제출된 프로그램이 인문학과 관련한 유용성과 즐거움의 차원에서 손색이 없을지라도 사업 종료 후 예상할 수 있는 계몽적 전망이 지나치게 넓거나 협소한 기획, 이용자의 능동성을 증진하는 '거점'이 아닌 (수업) 공간으로 한정된 기획 등은 표면적인 실행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가부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 3분과에서는 ***개의 프로그램 기획안을 검토해 최종 **개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였다.

3분과에 배정된 프로그램의 면면을 살펴보면 각종 탐방(체험) 후 글쓰기, '위안'과 '힐링', 인문학의 난해함을 (주로 통섭 등의 방식으로) 쉽게 접근하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유형화된 기획이 많았다. 또한 문화자원의 내재적 가치를 추켜세워 기획의 모든 근거로 제시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최근 인문학 강의의 유행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고, 기존 사례를 참고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지역적 상황, 시설의 목적 및 환경적 특징을 포함한 특수성, 종료 후 예상 성과 등이 기획서 상 얼마나 참신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되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

반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획의 경우 본 프로그램뿐 아니라 전후 과정에서의 기획력이 돋보였다. 문화자원의 권위에 호소하기보다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재)발견된 가치를 부여하고, 과거 지역 사회가 규정해놓은 문화적 인식의 틀을 갱신할

수 있는 도구로써 활용하고자 하는 실행 의지가 엿보였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과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새로운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그것을 인문학 프로그램과 연계해 구체적 결과물로 만들고, 결과물을 발전시켜 지역의 정책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순환구조를 기획한 사례를 꼽을 수 있다. 이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이성의 공적인 사용의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공공재가 아니라면 수행할 수 없는 거점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한 기획이라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한 대면 심사 현장에선 심사자 간 큰 이견 없이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지역 안배를 위해 최종적으로 1개 프로그램에 대해 조정을 진행하였다. 그 밖에 도서 구매비 등 독서 증진을 위한 예산의 분배 문제, 이용자를 특정한 경우 돌봄의 차원으로 인식되는 문제, 시설 평가 항목에서 규모에 다른 차별의 문제, 강사료 비중의 편차 문제, 구체적 활용이 불분명한 도서 제작의 문제, 강사 지원자의 지원 횟수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밝혀둔다.

인문학의 유용성과 즐거움, 흥미로운 접근을 강조하는 기획안들은 그 자체로 이용자의 최초 유입을 도모하기 위한 호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한 간곡한 호소문을 한 장의 서류로 간주해 이런저런 잣대를 들이밀어야 하는 심사자의 마음 역시 무겁고 조심스러웠다. 인문학적 정신이란 세태에 순응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추구할 때 가치를 부여받는다. 한정된 예산과 시간과 장소를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문학'을 이라는 한 단어를 관철하기 위해 고심했을 담당자와 강사 선생님들의 노고가 바로 그 자유와의 부딪침인 것이다. 지원이 결정된 프로그램과 다음을 기약하는 프로그램 모두 인문학이란 팽팽한 긴장의 지평에서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축하와 위로, 그리고 시작으로서의 감사 인사를 보내드린다.

2024 길위의인문학(지혜학교) 심의위원 일동

■ 2024년도 길위의인문학(지혜학교)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도 길위의인문학(지혜학교) / 길도4분과
- 회의일시 : 2024년 5월 9일(목) 15:30~17:30
- 회의장소 : 예술위 충정로 사무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이찬규, 이승훈, 조현성

이 사업은 국민이 자신의 생활과 삶 속에서 인문 정신 문화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중심으로 강의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여 국민 누구나 이 강의에 참여하여 삶의질을 높이고, 그를 통해 사회 전반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목적을 실현하고자 강의의 구성은 인문에 대한 관심 증진과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강연, 체험, 지역인문자원 탐방 등을 결합한 인문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심의의 기준은 예술위원회에서 제안한 기준을 따랐습니다. 첫째, 프로그램은 10회 차 이상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둘째 강사는 2명 이상이 담당해야 하며, 셋째, 프로그램에 강연, 탐방 또는 체험, 후속 모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내용은 인문이 중심이 되거나 인문과 관련되어 한다는 것도 심의 위원들 간에 일치된 기준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중치를 부여한 사안과 심의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가중치는 인구소멸 지역 도서관에서 제안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5점 부여하였습니다. 심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세 명의 심의 위원이 먼저 제안서를 읽은 다음 심의 기준에 따라 각자 평가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나) 각 위원이 부여한 점수의 합에 따라 전체 제안서에 순위를 부여하였습니다.

다) 집계된 점수표를 토대로 심의 위원 세 명이 모여 이에 대한 적절성을 토의하였습니다.

라) 토의 결과에 따라 각자 점수를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마) 토의 후 각 위원별 조정 점수를 확인하고 심의 위원 세 명이 모두 동의하여 이를 최종 점수로 정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먼저 제안한 프로그램이 인문 분야와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안한 프로그램이 독창적이며, 질적으로 우수한지, 흥미를 끌 만한 요인이 있는지, 그리고 전체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지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강

사에 대해서는 해당 프로그램 주제에 대한 충분한 교육적 역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프로그램 내용이나 강의 방식이 수강 대상자의 특성이나 지역적 특성을 잘 반영하였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예산 운용에 관해서는 강사료 책정의 폭이 크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가 지역 인문학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면 지역의 다양한 인문학 활동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사료의 폭을 어느 정도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선정된 프로그램들은 먼저 프로그램의 내용이 질적으로 우수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강의자들의 역량이 뛰어나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특히 세 위원 모두 우수하다고 평가한 프로그램은 강의 내용 구성이 시류에 편승하기보다는 인문학의 본질을 확장한 것이었습니다.

길위의 인문학이 실질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도서관 별로 지역인문학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에 지원하는 해당 지자체나 해당 도서관이 이 프로그램 이외에 지역인문학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적어내도록 하고, 그것을 평가 항목에 반영하기를 권고합니다.

2024 길위의인문학(지혜학교) 심의위원 일동

■ 2024년도 길위의인문학(지혜학교)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도 길위의인문학(지혜학교) / 길박1분과
- 회의일시 : 2024년 5월 7일(화) 15:30~17:00
- 회의장소 : 예술위 충청로 사무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기량, 백령, 장경숙

인문에 대한 관심 증진과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아 강연과 체험, 지역 인문자원 탐방 등을 결합한 인문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하는 '길위의인문학' 사업 취지에 따라 "인문정신문화의 가치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득할 수 있도록 삶의 질 제고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기획, 발굴한 박물관 미술관 문화기관의 지원서를 심사하였다.

전체 제출된 104건의 지원서는 '사업기획 우수성', '수행 시설(인력)의 전문성', '예산 편성의 적절성', '사업운영시설 편의성', '사업의 파급효과' 등 심의 기준에 따라 서면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소재 신청기관을 문화 소외지역으로서 배려(가점)하였다. 개별 심사위원이 각자 평가하고 합산하는 과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공정성을 가지고 검토하고자 하였다. 지표 중에서도 사업기획 우수성과 전문성, 파급효과에 좀 더 집중해서 검토하였다. 개별 심사가 진행되어 별도의 사전 토론은 없었으나 각자의 전문성과 현장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채점하였으며 개인별 편차나 이견이 크게 발견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선정단체에 합의하였다.

기존 '길위의인문학'의 참여대상은 박물관에 국한되었으나 2024년에는 미술관을 비롯해 생활문화시설로 확장되면서 생활 속에서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확대되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박물관 미술관의 정체성, 미션, 성격, 지역성을 고려하면서, 기존에 진행한 프로그램보다 참신한 주제와 방식으로 시도한 사례, 우리 사회의 각종 이슈를 다루면서 지역민들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한 사례 등, 인문정신문화 확산을 통한 삶의 질 제고와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일부 프로그램은 인문학적 가치와 연관성이 미흡하며 단순한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사례도 있었는데, 이는 인문정신문화 가치 확산의 진입 과정으로 사료된다.

이후 사업 확장성을 위해 고유 콘텐츠를 가진 박물관 미술관이 인문학과 만나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민과 공유하는 전략과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업별 예산안에서의 일부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며 2024년의 사업 운영 과정에서 예술위원회의 지원을 통해 보다 완성도 있는 길위의 인문학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우수사례 발굴, 개별 시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 지역 내 박물관 미술관 문화시설의 위상과 새로운 역할로 자리 매김하는 기관의 역량 발전 방법에 대한 다각적 연구나 논의가 필요하다.

한정된 예산으로 선정 기관 수(104건 중 최종 69건, 예비 7건)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선정된 기관외에도 개별 기획서 안에 많은 가능성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들의 또 다른 발전을 기대해 본다. 뿐 아니라 이후 박물관 미술관 내의 인문학의 관심이 고조되어 사업 취지와 기관의 전문성 실행력을 발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내 인문학 발전의 거점이 되는 박물관 미술관을 기대한다.

2024년 길위의인문학(지혜학교) 심의위원 일동

■ 2024년도 길위의인문학(지혜학교)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도 길위의인문학(지혜학교) / 길종1분과
- 회의일시 : 2024년 5월 8일(수) 13:30~15:00
- 회의장소 : 예술위 충정로 사무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인설, 백다흠, 최현주

길 위의 인문학(지혜학교) 사업은 인문에 대한 관심 환기, 인간의 문화와 공공 가치를 살피며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아 강연, 체험, 지역 인문자원 탐방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국민들이 일상에서 인문과 문화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삶의 질 제고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문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심의위원들은 심의에 앞서 이 사업의 개요와 목표를 숙지하였고 제출된 지원신청서를 토대로 151건의 전체 검수 심의를 통해 사업 역량이 분명하고 목표와 수행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지원단체를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심의위원들은 사업기획의 우수성(30%), 사업수행시설/인력의 전문성(20%), 예산편성의 적절성(10%), 사업운영시설/강의실 등의 편의성(10%), 사업의 파급효과(30%)라는 심의 기준에 근거하여 개별 심의 및 채점을 진행하였고, 심의 당일 대면 회의를 통해 최종 103건의 지원단체를 선정했습니다.

다종다양한 인문 활동 사업 지원서를 살펴보면서 인문 문화 활동에 관해 공공 영역에서의 인문 가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새롭고 참신하게 인문 가치를 공공의 장(場) 안에서 진지하게 발현하고 폭넓게 확장하며, 지방과 수도권/도시와 시골 등 장소성의 연계와 세대별 계층별 인문가치가 자연스럽게 결합되고 확산되는 단체에게는 좋은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다만, 전형적인 사업 기획, 인문 가치와 예술장르의 인위적인 결합, 강좌보다는 강사 개인의 영리목적을 위한 사업계획 등 사업 목적이 불투명하거나 수행능력을 예측할 수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없었습니다.

세 명의 심의위원들이 평가하는 방식이나 방법론에는 약간의 시각차가 존재했습니다만, 대개 높은 점수를 부여한 단체들이 겹치는 편이었고, 심의 당일 대면 회의에서는 사전 개별 심의에서 가채점 점수를 합산한 결과 큰 이견 없이 최종 선정 단체를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단체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인문 가치의 발견과 확장 등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심의를 진행/완료하였습니다.

지원해주신 모든 단체들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을 건넵니다. 선정되신 단체에게는 견고한 축하와 배제되신 단체에게는 심심한 격려를 보냅니다. 제안해주신 사업 계획 속에 드러나 있는 우수한 인문 가치에 대한 열정을 간직하며 활동해주신다면 앞으로 더 많은 기회, 더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2024년 길위의인문학(지혜학교) 심의위원 일동